

8) 우산보

상사면 흘산리 당촌지역에 있다. 이사천은 승주읍 유치에서 발원해 남쪽으로 흘러, 상사면을 관류하다가 낙안면 불재에서 발원한 물과 마륵리에서 합류해 순천시 교량동을 지나 동천과 만나 바다로 흐른다. 이사는 창령에서 흐르는 물과 만나는 곳의 이름이다. 이것이 내의 이름이 되어 이사천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사를 기준으로 상류 쪽을 상이사(上伊沙)와 하이사(下伊沙)로 행정구역이 나뉘어 조선시대에는 상사면과 하사면으로 부르다가 1914년에 도리면과 하사면을 통합해 도사면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45km 이상이 되는 하천을 강이라 부르는데, 이사천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천(川)이지만 여기에 못 미쳐 그냥 이사천이다. 이 사천을 막아 월곡, 도사지역에 물을 대는 보가 우산보이다. 보 안의 소(沼)를 용소배기라 부른다. 명주꾸리가 다 풀리도록 깊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이 깊다. 용소배기에 얽힌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흘산에 사는 허씨가 꿈을 꾸었는데 백룡이 “나는 소에 사는 백룡이다. 같이 사는 황룡을 없애야 한다. 보름에 싸울 것이니 그대는 활로 황룡을 쏘아라.”고 하였다. 같은 꿈을 사흘이나 꾸었다. 허씨는 보름밤에 활을 메고 소로 갔더니 자정이 되자 물이 들끓으면서 용이 솟아올라 싸웠다. 허씨는 숲속에 숨어서 그 광경을 보고 무서워서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와버렸다.

꿈에 백룡이 또 나타나 “무서워 말고 활을 쏘라.”라고 했다. 밤에 다시 활을 메고 나갔다. 역시 두 용이 싸웠다. 그러나 무서워서 활을 쏘지 못하고 돌아왔다. 또 꿈에 백룡이 나타나 “오늘밤이 마지막 싸움이다. 활을 쏘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고 하였다.

다음날 밤에 허씨는 “활을 쏘리라.”는 결심을 하면서 활을 메고 갔다. 자정이 되자 역시 물이 들끓더니 두 용이 솟아올라 싸웠다. 죽음을 무릅쓰고 큰 나무에 기대서 황룡을 쏘았다. 황룡의 머리에 화살이 꽂히자 별안간 소리를 지르고 떨어지더니 소가 피바다가 되었다.

다음날 꿈에 백룡이 “너의 덕으로 황룡을 이겼다. 그 은혜로 명당을 잡아주겠다. 어느 곳에 조상의 묘를 써라!”고 했다. 허씨는 백룡이 일러준 자리에 묘를 썼다. 그래서 자손이 번창하고 큰부자가 많다고 한다.

우산보는 이런 소 바로 아래 있는데, 해마다 봄이면 보를 막았지만 여름이면 큰 홍수 때문에 보가 터지곤 했다. 사람들이 터지지 않게 튼튼히 막아도 소용이 없었다.

어떤 사람 꿈에 신인이 나타나 “우산이를 잡아 넣으면 보가 터지지 않을 것이다.”고 현몽을 했다. 그 말이 소문이 났다. 보를 막던 사람들이 꿈 이야기를 하는데, 낮모를 여인이 지나가며 돌망태를 짊어지고 오는 어린 아이를 향해 “우산아, 우산아!”

라고 불렀다. 보막이꾼들이 그 아이를 잡아 묶어 보둑에 넣고 돌을 쌓아 보를 막아버렸다. 그뒤로 아무리 큰 물이 쳐도 보가 터지지 않아 걱정 없이 농사를 지었다. 사람들이 그때부터 ‘우산보’라고 불렀다.

이 설화는 보가 유실되어 다시 막는 어려움이 얼마나 컸는가를 말해준다. 우리나라의 풍속에 큰 일을 할 때면 사람을 희생의 제물로 올린 이야기가 흔히 있다. 전북 김제군의 벽골제 처녀 희생설화가 그렇고, 봉덕사 신중(에밀레종)의 어린아이 시주설화가 그렇다. 특히 독을 막을 때는 깨끗한 처녀를 바쳐 독이 무너지지 않기를 빌었고, 마을의 안녕을 위해 처녀를 바쳤는데 두꺼비가 구해주었다는 설화도 그 성격이 사람을 바쳐 재앙을 쫓으려는 믿음, 곧 종교성을 띠고 있다. 희생설화는 대개 처녀를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남자아이를 희생의

제물로 삼았다는 것이 다르다.